

대림 제2주일

기도서 P. 211 A해

제1독서(이 사 11, 1-10)

제2독서(로 마 15, 4-9)

복 음(마 태 3, 1-14)

숲 정 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①2935)

□ 강 론



독사의 족속들

전 종 복 신부

한 해를 청산하는 12월과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일백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청산 또는 결산한다는 것은 후회와 다짐이 동반되는 것이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분을 맞이하는데 결례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하늘 나라」를 준비하라고 외칩니다. 「하늘 나라」는 흔히 민주정치가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공약하는 유토피아적 국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없고, 오직 압력과 숙청만으로 도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가소로운지 모릅니다. 아니 차라리 그들의 말을 고지식하게 믿는(?) 우중이 더 애처롭습니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마태 3, 7-8)고 부르짖는 세례자 요한! 그분은 먼 옛날 옛적에 이미 사라진 회미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더욱 절실하게 우리의 심금을 울려줍니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만치나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그 간사스러운 유대의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의 마음(속셈)을 간파했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또 그 말씀은 그 시대에서 끝나지 않고 먼 훗날 쏟아져 나올 압제자들을 예견한 비수였습니다. 가슴 깊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의 비리를 똑똑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행실로써 말입니다.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죄악을 잉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겉으로는 미끈하지만, 몸 속에 무서운 독과 간사한 잔폐를 가득 품고 있는 독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몸서리가 처지지 않습니까? 누가 이 시대의 독사의 족속들입니까? 세례자 요한은 이 순간에도 외칩니다.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는 땅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군산 둔율동 성당 보좌신부>



호각을 멈춰라!

—이렇게까지 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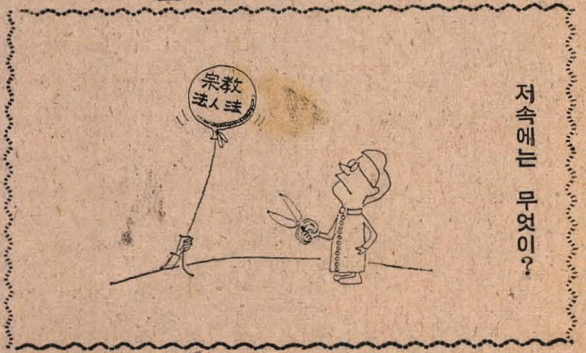
킹스컵 축구 결승전 실황을 중계하는 어나운서와 해설자의 안타까운 조바심이 밤을 잊은 사람들을 담당하게 하던 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단독 우승을 하면 무엇합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편파적입니다.” “저런 심판은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심판은 편파적이고, 선수들은 거칠고, 관중들마저도 흥분상태이니 참으로 문제입니다.” —대충 이러한 대화들이 우리를 갑갑하게 했다.

경기에는 정해진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경기를 운영해나가는 심판은 거의 신(神)의 입장에서, 공평무사하게 규칙을 적용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엄정한 심판의 지시에 선수들은 물론 관중들까지 승복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심판의 호각은 신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

킹스컵 축구에서 문제가 된 것도 심판의 호각 소리가 몇장수 가위눌리듯 해서 발단이 된 것이다. 인간이 어떤 신이나고 반문할런지 몰라도, 실수가 아닌 고의가 심판의 몸놀림으로 나타날 때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프로 권투의 타이틀전 판정에 불복이 잦아 채시합이 벌어지고 신성해야 할 학생 야구에 돈이 오갔다는 추문이 흘러다니니 문제인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경기를 보고 흥분했던 관중들이 전적으로 농락을 당했다는 것이다.

영터리 판정이나 사건의 진행이 운동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는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재판이 정치적으로 흐르거나, 만백성을 위해야 할 정책이 몇몇 특정인을 돕기 위해 이루어진다거나,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할 선거가 조작이 되는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도, 진리를 가르쳐야 할 교육이 병어리가 되고, 양심을 일깨워야 할 종교가 눈을 감고 침묵을 지킬 때 우리는 살아있는 노예가 되는 것이다.

숲 정 이 산 채



<성당 · 성지 순례기>

美國의 聖人 뉴만의 유해(6)

부주교 김 스테파노

나의 이번 해외여행은 구라파 여러나라에서 성모발현 현장을 순례함이 목적이었지만, 캐나다에서 교포사목을 하고 계신 유장훈 신부님의 피정 청탁으로 캐나다를 들릴 수 있어서 좋았다.

로마 국제공항에서 유신부님께 진보를 띄우고 토론토 공항에 내리니 유신부님이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셨다. 오랫동안 구라파에서 서투른 영어에 답답했음인지 유신부님과 대화중에 세제대왕님께 고마움을 느꼈다.

나는 유신부님과 주일미사를 함께 봉헌하면서 강론중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전주교구 소속 캐나다 본당 교우들임을 기쁘게 생각하시요." 이 한마디에 외로웠던 사람들이라 그 말이 좋았음인지 서로 먼저 초대하겠노라 범석을 떨어 유신부님 입장이 난처할뻔 했다.

캐나다 하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빼놓을 수 없다. 그곳까지 유신부님 차로 2시간 걸렸는데, 야밤에 5색찬란한 썬라이트는 창조주의 신비를 더욱 통감하게 하였다. 캐나다의 일정을 마치고 뉴욕공항에 내린 시간은 밤 9시였다.

뉴욕의 밤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 볼 때 마치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진 느낌이었다.

나는 뉴욕에서 머무는 동안 113층의 높은 세계 무역 센터 빌딩 상공에 올라 왕년에 세계에서 제일 높았던 었파이어빌딩(102층)과 자유여신상, 그리고 유엔본부 등을 내려다 보는 순간 아찔하였다. 나는 뉴욕에서 선후배 신부님 6명을 만났고, 아는 교우들도 많았다. 세상이 좁다는 것은 밖에 나가봐야 더 잘 안다.

필라델피아는 뉴욕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이다. 진동 보좌신부로 있을 당시에 영세 받은 교우가 차를 갖고 뉴욕에 왔다. 차를 운전하면서 자기 고장 자랑하는 소리를 나는 귀담아 들었다. 제작년에 교황님이 이곳에 오셔서 세계 만국 성체대회를 하였고, 이때 미국에서는 두번째로 성인품에 오르신 뉴만 성인 유해 앞에 교황님이 참배하셨다는 이야기이다.

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두손을 모았다. 내가 유해 성당을 갔을 때 유해가 안치된 제단위에 성체를 현시하고 순례객들이 열심히 조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신앙의 일치성을 더욱 실감하였다.

나는 성체대회때 이곳에 다녀가신 김종택, 이대련 신부님과 교우에 가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서 성체대회 현장을 샅샅히 둘러 보았다.

□ 이 작은 가정에 사랑의 손길들...

교구 인성회에서 협조 나서...

1980년 11월 30일(대림 제1주) 김정이가 제419호 3면의 양지쪽 기사내용의 계속이다.

이 기사를 보신 분은 누구나 애처로운 심정 금할길 없을 것이다.

12월 2일 아침, 교구 인성회 회장인 김환철 부주교님께서 본인에게 허은자씨 태에 방문, 인성회가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12월 3일 직원 두명과 같이 오전중 방문했다. 다행이도 결혼전 교회에 헌신하고 모든 일에 열심히 활동하던 분이였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산후 안정 조리 부족으로 인한 산후풍으로 좌측 전신 마비상태로 전세방 한쪽에 누워 실업자인 남편의 간호를 받고 있는 산모였다.

현재까지는 인근 주민들의 따뜻한 손길로 도움을 받고는 있으나 단돈 1,000원이 없어 약 한첩 먹지도 못하고 있어 가슴이 뭉클했다. 그러나 허은자씨는 전장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도 했다. 마비된 다리와 왼손은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감각이 있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곧 시내 공동에 있는 제민당 한약방 한의사 선생님을 만나 김정이가 기사내용을 보여줬다. 자세히 읽어 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이런 일도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치료해 보자는 보장을 받고 한약 복용을 시작했다.

주님께서 주신 어린 아기를 봐서라도 이 성가정을 버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며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습니다. 교구 인성회 최 남 수

雪

박 요 한

雪君!
어제의 니가 아니건만
정녕 너!
하얗고 포근한
董心의 벗이여라.

훈아! 준아!
너희의 친구가
오는 걸 보니
넌 오실 날이
멀지 않았겠지?!

넌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도해 주지 않겠니?
추울고 배고파 우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행복의 전당

행운예식장

김제군 김제읍 요촌리 2구 217번지

전화 2317

대표이장 근(이냐시오)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워크엔드
Weekend



버킹엄
Buckingham



맥그리거
MCGREGOR

주니어·아동복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화약국 옆
전화 4451 유희리안나

표고와 들기름 위에 설 하느님의 성전

유 중 환 신부

사람은 먹어야 산다. 음식도 먹고 하느님 말씀(진리)도 먹어야 한다. 음식은 육체를, 하느님의 말씀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우리 무주 설천 교우들은 여기에 착안해서 무주 특산물 표고를 상품화했다. 낮에는 일터에서 일하고 밤이면 대다수 신자들이 설천 소재지 임회장대에 한데 모여 표고 상품을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고 있다.

표고를 상품(1만원) 중품(5천원) 하품(2천원)으로 3등분 했다. 1개월전부터 하느님의 성전을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좋은 생각으로, 설천공소 건립 추진위원회(7명)을 구성하고 하느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표고 판매처는 서울과 전주로 결정해서 서울엔 최원장(대우 병원장)이 도맡고 비용관 계로 전주엔 임회장과 신자들 몇몇이 맡아서 3주전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서울 판매처는 주로 최원장님 옛 학교 친구들이다. 원장 최안드레아씨는 처음엔 쑥스럽고 이상한 기분으로 출발했지만, 하느님의 집을 짓는 아름다운 일이기에 용기를 갖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기대 이상으로 많은 수를 판매하였다. 뿐만 아니라 옛 동료들의 격려와 술대접까지 받아가며 표고를 1차 기쁘게 판매하였다. 전주는 전동과 중앙천주교회에서 23일과 30주일에 판매를 했다. 23일주일엔 189개중 130개를 판매했고, 30일주일엔 중앙성당에서만 판매를 했는데 15개가 팔렸다. 어떤 교우들은 이름도 밝히지 않고 현금을 해주시며 격려해 주시기도 하였다. 현금액은 100원에서 10만원까지 다양한데 대다수 노인 교우분들과 부인교우들이다. 그리고 가난한 교우들이었다.

이제 우리 설천땅에 하느님의 성전이 설 수 있는 기쁨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의 교회, 무지하고 버림받은 자들의 교회가 건설될 것이다.

나는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우리 설천교우들이 일치단결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노력을 너무나도 과분하게 충족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끝으로 가난하고 버림받은 농촌 교우들에게 언제나 용기를 베풀어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 물질적이든 영신적이든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주신 교우들, 또 서울에 있는 최안드레아씨 친구들께 하느님의 은총을 빈다. <무주 천주교회 주임신부>

농촌 지도자 연수회 안내

교구 농민회가 주최하는 농촌지도자 연수회가 9일 13시부터 12일 정오까지 가톨릭 센터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교육에는 전반적인 농촌문제와 농사기술, 신앙생활 등을 다루게 됩니다. 뜻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보다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 봅시다. 참가자는 본당신부님의 추천을 받아서 9일 오후 1시까지 가톨릭 센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심이 (383) 김병오



□정화 미술학원 학생모집□

윤경미장원

최윤경 미술실
(신부화장 및 드레스)

이리시 창인동 구역전 앞
최 윤 경(유리안나)
전화 ②8653

개인지도식 교습-학생부. 성인부

제일 주산 경리학원

교재 무료배부. 시간은 자유로 정함

위치: 한국은행 앞 전화 ④ 3132
원장 성 달 응(안드레아)

건축용케인트, 기와용락카, 카-슈칠, 호마이카, 락카, 접착제, 청단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재료 도장공사 청부(상답)

현대 페인트사

청차표 현대페인트(주)
전 주 직 매 점
주 오영원(바로로)·김영환(아오스당)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②2377번

□ 81년도 원아모집 □

성체 유치원

입학자격: 만 5세~6세 까지
모집인원: 남·여 80명 (2학급)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80년 12월 1일~12월 20일
1980년 12월 20일 오후 4시까지
연락: 노송동 수녀원내 ☎ ②8408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전문대립질 및 성탄절 꽃꽂이 쿠틀 있음

※교우여러분께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 2628
범 락도(덕배)·이 마리아

직원 채용 공고

- 직종 및 인원: 일반직 남자 0명
 - 응모자격: 만 18세이상 35세미만의 남자로써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1통
 - 명함판 사진 2매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 병적증명서 1통
 - 자격증소지자는 사본 각 1통
 - 신원증명서 1통
 - 접수기간: 11, 24~12, 13 17시
 - 접수처: 전주시 동서학동 110~1 본 조합 총무계 (전화 ② 7188)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면접일시: 12, 15, 10시 본 조합
 - 합격자 발표: 12, 19일 개별통지
- ※ 접수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전주 성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강 남 준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가톨릭 음악제...12월 13일(토) 오후 4시, 7시 30분, 전주 시민문화관
2. 젠들의 오후...14일 오후 2시, 중앙성당(남·녀 전체 제모임)
3. 농민회 지도자 연수회...9일 오후 1시~12일 12시까지, 가톨릭 센터에서 참가비 -3,500원(숙식, 교재, 편도 교통비 제공), 대상-농촌문제에 관심있는 분, 회원 분당신부님이나 회원의 추천을 받아서 9일 오후 1시까지 가톨릭 센터에 오셔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4. 대학생 화요미사 안내...매주(화) 오후 5시 30분, 덕진 가톨릭 학생회관에서
※ 잠시 중단되었던 화요미사가 실시됩니다.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람
5. 전주교구 연합회 피정 무사히 마쳤습니다(11월 29일·30일)
뜻있는 학생과 주님과 의 대화속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치명탈 원고모집...12월 5일 월요일까지 예정일을 원고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20일까지 연기하오니 많은 참석 바람, 각 분당 학생회장님은 3편 이상씩 기일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중·고등학생 신자 및 예비자, 제목-자유, 부문-시, 소설, 수필, 기행문, 서간문, 기타
보내실 곳-520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중·교연합회 앞

(중앙)

전화 ③3651
③3874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기성
보좌 신부 엄기성
사도 회장 김기병

1. 사도회 월례회: 11일(목) 저녁 7시
 2. 프란치스코 3회: 오후 2시 강당
 3. 특별 강론: 저녁미사 후
7일-마태오 복음에 따른 예수의 유년기, 14일-메시아는 누구인가?, 21일-메시아의 운명
 4. 가을판공 성사 일정: 별지 참조
 5. 연세식: 12월 21일 오후 7시
 6. 원아 모집: 10일 10시부터 원서배부 (선착순)
 7. 젠들의 오후: 14일 오후 2시
 8. 예비자 (노인·성인·학생)합동 실습교리(성사편): 12월 7일 오전 11시 30분~12시 30분 강소-강당
 9. 주일 청년 미사: 청년들은 저녁 7시 미사에
 10. 가톨릭 음악제: 13일 오후 4시·7시 30분 시민회관
- 지난주 봉헌금: 404,825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중열
사도 회장 박춘근

1. 제 12차 성령 세미나 개최: 8일~13일까지 매일 오후 2시~4시까지, (접수: 8일 오후 1시부터)
 2. 5일 은혜의 밤: 많은 신도들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3. 베소라 성서 강의: 매주(화) 저녁 7시 30분~9시 30분 까지, 결석 않는 수강자가 됩니다
 4. 성령 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 까지
 5. 금주의 성경 읽기: 신약의 히브리서·야고보서전체
 6. 애령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7. 청년 성가대의 성탄 성가 연습: 매일 저녁 7시 30분
 8. 교무금 납부의 날: 12월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아직 교무금을 다 못내신 분들은 속히 완납 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219,047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조정열
사도 회장 양상연

1. 사도회: 오늘 공식 미사후 사도회 임원·구역장·반장·판공회장·단체장 꼭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2. 성가 연습: 8일부터 시작 저녁 7시 30분부터
 3. 예비자 특별 교리: 15일부터 저녁 7시 30분
 4. 구유 세트: 봉헌할 은인을 찾습니다(20만원)
 5. 성사표 찾아가세요: 14일 저녁 하루 성사 불니다
- 지난주 봉헌금: 360,97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중택
보좌 신부 범영배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우회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2. 반회장 회의: 12월 8일 저녁 7시 30분 사도회 임원 및 반회장님을 빠짐없이 나오세요
 3. 학생회 월례회: 오늘 학생 미사후
 4. 판공 성사아직 못 보신 분들은 13일(토) 오후 3시~5시 신부님 면담후 성사보세요
- 지난주 봉헌금: 279,02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철수

1. 삼일 위원회: 공식 미사후 (회의실) (81년 예산 확정 및 사목계획 수립)

2. 유아세례: 매일 첫주 공식미사전
 3. 성심 부녀회: 10일(수) 오후 2시
 4. 판공: 광곡리 공소-9일(화) 오후 3시부터, 마음리 공소-11일(수) 오후 3시부터
 5. 반장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6. 교적 확인을 합시다 (가정 방문 누락자)
 7. 분당 판공성사 17일(수)-1·2·3·4반, 18일(목)-5·6·7·8반, 19일(금)-9·10·11·12반, 20일(토)-13반 기타
※ 판공 성사 시간-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시간을 반별로 잘 지켜주세요
 8. 다음주 전례 담당 독서-① 김낙균 ② 박순성, 신자들의 기도-한형수
- 지난주 봉헌금: 148,900원 교무금: 135,0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사도회 월례회: 12월 7일 공식미사 후 자 구역장님 반장님 참석 바랍니다
 2. 유치원 겨울방학식: 다음 주일 오후 2시
 3. 성탄 성가 연습: 12월 11일 오후 7시 30분
 4. 주일학교 아동·중·고등학생: 12월 13일 판공
 5. 판공 일정 안내: 12월 15일-금암동판공, 12월 16일-태평동 오전·동양아파트 오후, 12월 17일-어은골
- 신축 기금 내 주신분: 익명(1만원), 장석인(3만원)
□ 지난주 봉헌금: 195,945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우
보좌 신부 김기성
사도 회장 유석중

1. 유아 세례: 9시 미사후
 2. 중·고생 성가대원 모집: 학생 미사후(임원들 꼭 참석 바람)
 3. 숲정이 셀 주최 성경 퀴즈 대회: 12월 7일(일) 오후 2시 30분
 4. 다음주 가정 방문(9일~12일): 남노송동·서교동
 5. 수녀원 신축기금 내 주신분들
전동 신학생 일동(만원), 무명(50만원), 임용석(10만원), 이선경(3만원), 권태욱(3만원), 박영행(3만원)
 6. 오늘의 전례 담당 (7일)
아침 미사: 사회-이신홍 ① 박종우 ② 박순기
공식 미사: 사회-이준영 ① 이덕수 ② 배양수
저녁 미사: 사회-김윤주 ① 변해식 ② 경양수
 7. 가톨릭 음악제: 13일(토) 오후4시~7시 시민문화관 많은 참여 바람
- 지난주 봉헌금: 400,545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7시 저녁 미사후 예산편성이 있으니 각분과에서는 예산서 제출바람
 2. 첫 영성체식: 오늘 10시미사시
 3. 공소 방문: 10일-두현리, 11일-돌꼭지 분당에는 당일미사 없습니다
 4. 예비자 영세식: 21일 오후 1시30분에 있을 예정
 5. 분당판공: 14일 21일 주일에 있으니 성사표를 9일·12일·13일에 분당 사무실에서 찾아가십시오
 6. 한국 천주교 주교총회: 8일은 분당 메켄수녀님 분영 축일입니다 또한 파공 참여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96,540원 어린이봉헌금: 3,270원
교무금: 98,500원